



임근재 작가 초대전

기차 형상 '장성 우리동네미술관' 서 30일까지

전남체전 장성 개최 맞물려 전시...수채화·드로잉 등 45점



임근재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장성 '우리동네미술관'에서 전시를 연다.

“살아가는 이야기 ‘나의 노래’...그림에 담고 싶었죠”

예술가들은 제마다의 방식으로 삶과 예술을 비유한다. 어떤 이는 '소풍'으로, 어떤 이는 '여행'으로 상징한다. 또 어떤 예술가는 낭만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들 삶을 예찬하기도 한다. 비유가 어떠한 그것에는 작가들 나름의 철학과 삶에 대한 자세가 투영돼 있기 마련이다.

예술을 노래로 비유하는 작가가 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노래한다는 의미일 게다. 장성 출신 임근재 작가. 임 작가는 수년 전 고향으로 낙향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그림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노래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노래는 그림인 셈이다.

장성역 바로 옆에 기차 형상의 이색적인 미술관이 있다. 일명 '우리동네 미술관'. 두 량의 기차를 붙여 2층으로 만든 기차는 도심의 어느 미술관과는 다른 아우라를 발한다. '엘로우 시티' 장성의 랜드마크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눈길을 잡아끈다. 금방이라도 기적소리를 날리며 기차가 플랫폼을 떠나 어딘가로 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우리동네 미술관에서 임 작가의 전시(30일까지)가 열리고 있다. '나의 노래'를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초대전은 오는 18일부터 전남체전이 장성에서 개최되는 것과 맞물려 기획됐다.

임 작가는 "지난 1월 장성미협에서 연락이 와, 이번 전시를 하게 됐다"며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 최근 수채화와 드로잉까지 더해 모두 45점을 고향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모던하면서도 아티스틱한 실내 공간과 마주한다. 양쪽 벽면 사이로 기다란 통로가 나 있는데 열차의 실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작품들은 한쪽 벽면에 걸려 있고 반대쪽은 유리창이 달려 있어 일직선으로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천정이 다소 낮아 100호 크기의 그림은 걸 수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기차(전시장)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임 작가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장미와 나팔꽃, 금둥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열차 안에 핀 꽃들은 저마

다 그림을 넘어 잔잔한 '노래'로 치환된다.

"몇 해 전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을 했죠. 서민적이고 서정적인 것들은 모두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고요."

임 작가의 성정을 알고 있는 터라 "그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말은 간단치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천품이 소박하고 서민적인 화가다. 장성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보낸 유년의 시간은 오늘의 그와 그림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저의 고향은 자동차를 구경하려면 걸어서 한 시간만 걸어도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사골입니다. 강촌이 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형과 함께 광주로 유학을 갔어요. 친구 하나 없는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사골 집이 그림과 옛동네가 자주 눈에 떠올라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후 그는 조대부고 미술반을 거쳐 조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다. 창작활동을 하는 틈틈이



'나의 노래'

사골집을 오가며 '서정적인 감수성'을 충전해온 했다. 그러다 고향으로 낙향해 화실로 출퇴근을 하다, 주변의 자연 풍경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다. "광주 작업실로 가기 위해 장성 집을 나설 때면 아름답고 화사한 나팔꽃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다"는 말에서 시류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천성 예술가의 면모가 읽혀졌다.

임 작가는 "요즘은 나팔꽃이나 소나무, 동백꽃을 나만의 구도 설정을 통해 구현한다"며 "특히 동양화에서 활용하는 화면의 여백 미(美)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작업 배경은 큰면으로 처리하고 대상은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며 "발이나 무당벌레 같은 곤충들을 가미해 작품 전체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그림은 사골 담장 너머로 늘어진 붉은 장미, 풀숲에 함초롬히 피어난 나팔꽃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회화적 변용보다 본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 자연은 냉철하면서도 다정다감한 길항의 감성을 선사한다.

그는 3년 전 사골 땃자리 부근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다. 집에서 2분 거리에 작업실이 있어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이사 걱정과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더없이 좋다"는 것이다. 이전에 작업실을 10번 넘게 이사한 적이 있다는 말에서 저간의 고충이 짐작됐다.

박은지 미술평론가는 언젠가 임 작가 작품에 대해 "결국적으로 40대 50대 60대 작가가 다양한 소재 속에서 걸어온 미학적 사고의 틀 속을 들여다 보면 면면히 흐르는 대자연의 범주 안에서 숲과 새와 꽃과 소통하고 고뇌하고 확장하고 탐색해 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통은 다져지고 그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임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 400여회 기획전 등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전남도전 심사, 광주시전 운영 및 심사를 맡은 바 있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에서 16일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공연에서 임직원들이 종묘제례악무 '보태평지무'를 선보이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제공>

크라운해태가 선보이는 달콤한 전통음악 공연

16일 광주예술의전당

크라운해태제과가 광주 지역 영재들과 함께 달콤한 전통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공연'이 1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공연은 흥겨운 전통음악으로 지역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크라운해태 임직원 180명이 전통음악을 배워 직접 공연에 나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주 1회 전문 국악인으로부터 전통음악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왔다. 공연에는 지역의 국악 영재들도 함께해,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무대를 꾸민다.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무 중 '보태평지무' (희무, 귀인)로 시작된다. 이어 민요 '장기타령', '자진방노래', 판소리 '인생백년', '진도아리랑' 등이 펼쳐지며 흥겨움을 더한다. 크라운해태가 후원하는 광주 지역 단체 '종물전지아리술'도 출연해 신명 나는 판굿 무대를 선보인다.

한편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해 대전과 대구에 이어 올해 광주까지 전국을 돌며 전통음악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갈고닦은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광주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객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전통 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윤상원 기억과 실천 청소년 짧은 영상 작품 공모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도전을 지킨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뜻을 기리는 청소년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윤상원기념사업회는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2025 윤상원 기억과 실천 청소년 짧은 영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9일까지.

이번 공모전은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오늘날 청소년의 시선으로 다시 조명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로 3분 이내의 영상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ysw8005@naver.com)로 제출

하면 된다. 형식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시상식은 윤상원 열사 45주기인 5월 27일 추모식과 함께 열리며, 대상(1작품)에 상금 100만원, 은상(2작품)에 각 70만원, 동상(2작품)에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윤상원기념사업회로 문의하면 된다.

윤상원기념사업회는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뜻이 청소년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된다"며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19일 'N-Top 콘서트 밴드 음악여행'

봄날 박물관에 올라 피지는 선율,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오는 19일(오후 2시) 'N-Top 콘서트 밴드 음악여행'을 펼친다. 이번 음악여행은 올해 문화행사 첫 프로그램이자 박물관을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료 참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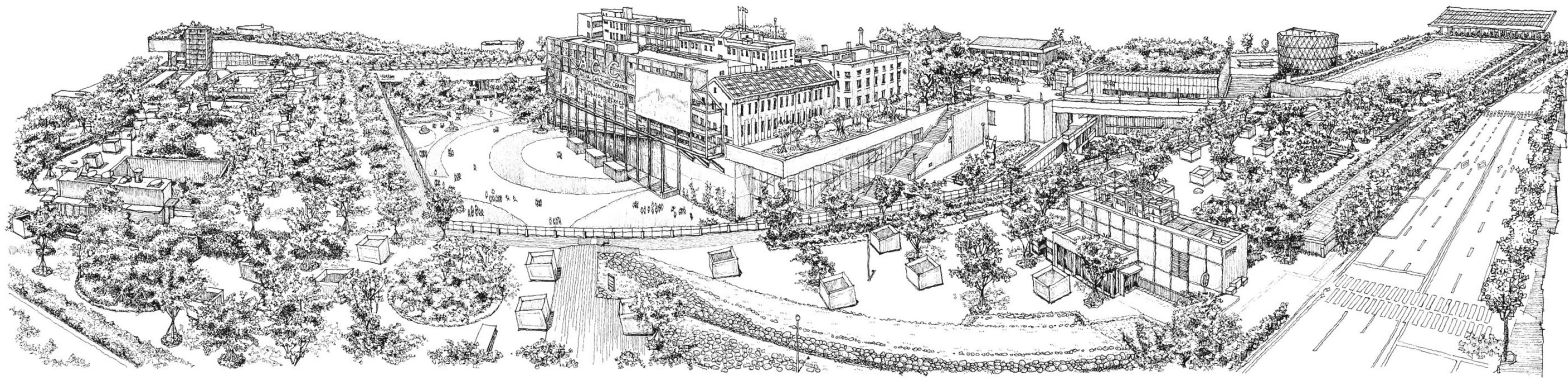
실력과 밴드 'N-Top 콘서트'는 그동안 다채로운 음악을 토대로 대중과 함께 호흡해왔다. 이번 공연에서 이들은 박물관 구석구석에 봄날의 따스한 기운을 전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음악을 토대로 힐링과 문화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관장은 "영상강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건립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



서트는 올 문화행사 첫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며 "박물관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가 되듯, 아름다운 선율이 시민들의 삶에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통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동환 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펜 감성 가득 'ACC에 반한 스케치'

'어반스케처스' (Urban Sketchers)는 거주지나 여행지, 마을 모습을 현장에서 그리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70개국 450개 도시에서 활동 중이며 광주에도 지난 2020년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이 결성됐다.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대표 서동환)이 오는 20일까지 전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숙, ACC)에서 열고 있다.

'ACC에 반한 스케치'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ACC는 물론 광주의 도심, 광주의 자연, 타 지역의 풍경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ACC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모두 91명이 참여했다. 지역 작가 외에도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작가 91명 참여 20일까지 전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제주, 고양 등 다양한 지역 화가들이 동참해 의미가 깊다.

서동환 작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밀하면서도 정밀하다. 날것 그대로의 ACC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특유의 분위기를 발한다. ACC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구현한 작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김수옥의 '무등의 봄'은 이맘때 무등의 풍경을 초점화했다. 연초록, 진초록이 산을 뒤덮은 풍경

은 서석대, 임석대와 어울려 신비로우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푸른 기운이 전해와, 잠시 잠깐의 우울한 기분마저 저만치 밀어낸다. 윤코의 '성산포가 보이는 유채'는 제주의 질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 밭고랑 사이로 드러난 까만 돌담이 어우러져 말 그대로 '한폭의 그림'으로 남았다.

한편 서동환 대표는 "ACC 대나무 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지역작가 외에도 전국의 작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통해 단체의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